

지역 매 아 리

#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김제시 보건소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과장 강신호)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족구병이란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한,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또는 대변 등을 통해 전파되며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증상 발생 7~10일 후 대부분 자연히 회복되나, 일부 환자는 고열, 구토,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족구병 발생 시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세탁하며, 장난감 등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제는 빈 생수통(500ml)에 종이컵 1/3량의 염소계 표백제(4%)와 물을 섞어 사용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 후 폐기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캠페인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김제중학교, 김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어린이 기호식품,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흘간 벽골제일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인 제21회 지평선 축제 홍보도 병행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김제시는 23개의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배치 운영하여 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문구점 등 93개 업소에 대하여 매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일반업소에서는 돈, 화투, 담배모양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성적 호기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서저해식품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대형 식품점업소(가맹점 100개 이상)의 햄버거, 피자 등의 영양성분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 되어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전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12건 안건 처리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는 18일 본회의장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으로 지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실·과·소별 주요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적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된 안건은 총 1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제시 병역명목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오상민 의원),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형철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2건,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19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1건이다. 운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및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정책 건의와 개선·검토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제시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대표 제안자인 고미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비정상적 수출 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의회, 감사원 감사 청구서 제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사태 원인규명·유사사례 재발방지 기대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18일,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관리책임기관인 완주군의 부실한 관리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특히 의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7월17일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의결된 직후, 폐기물관련 조사특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밝힌 관련 증거자료와 의결서를 작성하였고 군의회를 대표해 의결 다음날인

18일, 조사특위 위원장인 서남용 의원과 조사특위 간사인 김재천 의원이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제출했다.

조사특위 위원장은 "군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사태지만, 이번 기회에 원인과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만, 이러한 폐기물 참사가 다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원 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보은매립장은 2014년 4월 폐쇄분 등을 처리하는 예외적매립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직후인 8월부터 악취와 오염된 침출수로 인한 민원폭발이 잦았으며, 해당 침

출수에서 비소나 페놀같은 유해물질이 검출 확인되었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완주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허술한 관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매립장 사태로 인해 지역농가들의 경제적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은 "감사원이 완주군의 폐기물사태의 심각성과 군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에 나서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막바지 총력

오는 9월 27일 종료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완주군이 막바지 총력을 기하고 있다.

18일 완주군은 축산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지난 6월 19일부터 인허가관련 10개팀을 주축으로 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합동사무팀을 구축해 매주 2회 농가 개별 검토

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30여 농가의 케이스를 적극 검토해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합동사무팀에 검토사항을 요청한 한 건축사는 "인허가 접수 전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경우 각 팀을 돌며 시간이 오래걸렸"다며 "지금은 한자리에서 모여 협의의 및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러 "지금까지 검토받은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비슷한 사례의 문제도 함께 접수하여 인허가접수에 속도가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6월 임시회에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행정+의회+축산단체+전문가)해 지난 1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새만금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기대”

김제시, 새만금 사업 주민 설명회 순회 개최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위해 새만금 사업 주민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산면을 시작으로 9월까지 6개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새만금 사업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에 어떻게 새만금지역이 발전할지를 용지별로 설명하고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관할결정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이 1991년도 착공 이후 내부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방조제 준공 이후로도 김제 관할지역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 3월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의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 내용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6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

는 국제협력용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스마트 수변도시(200만평) 조성의 청신호를 알렸고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 뿐 아니라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강신모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주민 설명회에 앞서 새만금 김제 뒤편 찾기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김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은 "이번 순회설명회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의 개발이 김제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환경지킴이 워크북' 제작 배포

완주군이 일상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완주군과 함께하는 환경지킴이'를 위한 워크북(이하 워크북)을 제작했다. 18일 완주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현재 환경오염의 피해현황, 향후 전망 등 일상상의 예방방법을 수록한 워크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워크북은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마을회관 등에 배부 할 예정이다. 마을회관 등에 비치할 워크북은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큰 글씨로 제작해 비치할 예정이다. 워크북은 5가지 내용으로 분류돼 있으며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시작으로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과 플라스틱, 우리의 함께하는 물, 기후변화의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다루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미세먼지 피해를 줄

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매년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알리기 홍보물 설치사업, 어린이 등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우수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통해 재활용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또한 우기 시 하천 오염 예방을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요 사업으로 1시간 1생태 사업을 위한 경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 설치사업을 추진 환경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